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심비타임즈 편집인

구원파(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최정점에 있는 유병언(俞炳彦, 73세)이 죽었다. 그의 죽음은 많은 미스터리 속에 싸여 있지만 어쨌든 충격적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비밀과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는 것은 아닌지,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유병언씨는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 최고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수배현상급을 5억 원씩이나 걸고 검경이 체포에 주력하였으나 잡히지 않은 채, 끝내는 객사하고 말았다. 그의 객사지는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밭이었다. 유씨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피를 준비, 4월 23일 경기도 안성의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을 빠져나와 자기 신도 집에 머물다 5월초 전남 순천 송치재의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검찰이 그의 이 은신처 '숲속의 추억'

인과 모른 유병언의 최후와 '촌극 수사'

을 덮친 것은 5월 25일. 그러나 수색은 실패였다. 그를 잡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월 12일 별장에서 한 2km쯤 떨어진 매실밭(순천시 서면 학구리)에서 노숙자 차림의 한 번사체가 그 밭주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때 시신은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미지의 시신이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지 꼭 40일 만에 유병언 씨로 판명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월 12일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무연고 노숙자로 추정되는 번사체의 머리카락과 대퇴부 뼈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장성 분원에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는 의외로 40일만인 7월 21일 저녁에 나왔다. 그 무연고 노숙자의 DNA는 현재 수감 중인 유병언 씨의 친형 유병일 씨와 일치하고, 또 순천 별장에서 채취한 유병언씨의 체액과 금수원내 유씨 집무실에서 수집한 DNA와도 일치했다. 이를 토대로 순천 장례식장에 보관중인 번사체의 시신 지문을 재확인한 결과 유병언 씨와 같다는 사실을 최종확인했다. 결국 매실밭의 부패한 번사체는 곧 다름 아닌 유병언씨의 시신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죽음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사건은 이러한 유병언씨의 죽음으로 종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의 사망은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파헤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각종 보상 문제 등에서도 그 재원 마련의 길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하면 그가 재야할 재무상의 문제들까지 정부나 국민의 몫으로 돌리지 않게 되었다. 유병언 씨의 죽음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바로 그의 사인의 규명이다. 그 사인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구과수'에서 사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느끼바가 많지만 한두 가지만 들어 이야기 하자면 정치권의 대응 방식과 유병언 씨 일가의 부도덕한 삶의 방식 등을 들 수 있겠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원인 제공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책임이 선사와 선주 유병언씨에게 있음에도, 피해자인 유족이나 여야 정치권에서는 선주 유병언 씨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한 마디도 묻은 일이 없다. 유병언씨에 대해서는 모두가 팔먹은 병

어리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랬을까. 그리고 다음은 유병언씨 일가의 무한한 탐욕과 부도덕한 생활이다. 국내외서 벌이는 이들의 호화, 사치, 염치, 모르는 무질제한 행동들은 종교인은 그만두고라도 상식 있는 인간이면 할 것이 아닌 것들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경에는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고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둔다"고 하였다. 유병언 씨는 세월호 참사가 나타나자 희생자들에게 대한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며, 국민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를 통하여 허탈한 심정을 달래 주어야 했다. 그리고 사건의 수습에 적극 나서야 옳았다. 그는 회개와 사량을 생명으로 하는 종교지도자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는 반대로 희생자와 유족, 국민들을 우롱하며 도피에만 급급했다. 그리고 급기야 맞은 것은 때들이 노숙자의 신체와 같은 비참한 최후, 곧 죽음이었다.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고,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두는 인과의 진리를 그는 몰랐던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가치 충분하다

한국의 전통 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탄력이 붙게 됐다. 다가오는 소식이다. 조계종이 오는 8월 6일 총무원 지하 공명장에서 한국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을 개최한다. 전통 산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사업은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전통사찰 세계유산 추진 전문가협의회' 구성하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듬해에는 법주사와 마곡사, 선암사, 통도사 등 7개 사찰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3년 이들 사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 이번에 발족하는 등재 추진위원회는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전통 산사를 2018년까지 최종 등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다양한 연구와 관련 학술 세미나를 열고 전통 산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기 위한 보편적 가치를 살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선·교 융합의 독특한 형식과 현재까지도 승가 공동체의 생활 문화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역동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돼 건축물이나 지형이 잘 보존되고 있고, 각종 회화, 석조물, 불상 등을 통해 다양한 시대 층위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실제 2012년 9월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차 존 허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문위원회장은 "한국의 사찰은 인도로부터 불교가 전파되는 동안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핵심 원치, 즉 종교철학이 올바르게 전송돼 있다는 사실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통 산사는 분명 한국의 정신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보고이다. 한국불교의 전통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불교계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불련 활성화는 총동문화 로드맵부터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화장은 말단 사원서 출발해 현대차 베이징법인 사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백 회장은 자신의 이러한 성공 신화 뒤에는 대불련 활동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백 회장은 한국사학계 거장이던 김성현 동국대 교수와 대불련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만큼 대불련은 그의 인생에서 청년시절 꿈과 불심을 함께 키워준 정신적 울타리였다. 이제는 선배가 돼서 대불련 총동문들을 이끌며 선후배간의 갈등을 봉합한 백회장은 10~20년 후 고령화된 불자들이 떠난 그 자리를 채워줄 이들은 바로 대불련 회원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며, 이들이 바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라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을 중흥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모두가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불련 총동문화는 8월 23~24일 양산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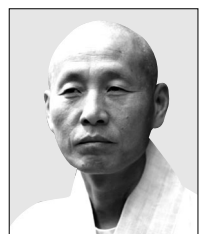
도사에서 제12회 총동문화대회를 개최한다. "열어온 50년! 열어갈 50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불련 내용이 끝난 이후 첫 행사라는 점에서 교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대학생 동아리들은 대불련 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난국을 맞고 있다. 그중 종교 동아리들의 회원가입과 네트워크 구축은 어려운 상태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화합과 대불련 조직 활성화를 위해 대불련 총동문화부터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때다. 현재 대불련은 전국 360여 대학 가운데 60여 대학에서만 활동한다고 한다. 대학생 불자 육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회원간·세대간 소통을 늘려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학생 불교 활성화를 위한 총동문화 로드맵이 절실할 때다.

발언대

창작염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7월 17일 조계종 교육원 주최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 염불들이 선보여졌다. 파격에 가까웠던 창작염불에 대한 시선은 분명히 나뉜다. 창작 염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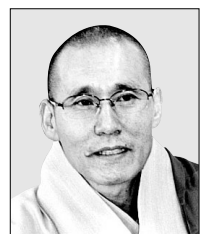
대중 위한 염불도 필요하다



인목 스님
조계종 의례위원장

창작 염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기존 염불은 전통적인 장엄미가 있지만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대중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처음 열린 학인염불시연대회는 창작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는 기존 형식에 비해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회에서도 부처님 앞에서 율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기도 하다. 모든 염불을 창작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하는 전통적인 염불 의례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염불은 그 층위가 나뉘어야 한다. 이제 일반 대중에게 하는 염불은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현대적 율곡으로 새로 만들어져 보급돼야 한다. 한국불교 안에서 염불 수행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경 스님이 제안했던 종단 차원의 '염불발전위원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님이 스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세 시대에 어울리는 염불을 스님들이 하면 재가자들까지 바로 확대된다. 때로는 파격도 필요한 법이다.

전통과 기본이 더 중요하다



원학 스님
서울봉은사주지

처음 대회 심사 의뢰를 받고 학인들의 염불에 기대했던 것은 기본 조식 예불과 행선, 관음시식 등 기본적인 부분이었다. 막상 대회에 가보니 파격적인 창작 염불들이 많았다. 대회를 아예 전통과 창작,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 아쉬움이 많았다. 창작 염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염불 시연 대상자가 문제이다. 염불 습의가 완전한 스님이 대중들을 위한 염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아직 성급하지 않은 학인 스님들이 너무 파격을 쫓아가는 것은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학인 스님들은 전통을 배우고 익혀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중을 위한 염불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과 전통이 없으면 염불 의식이 가지는 종교적 장엄미는 사라지게 된다. 염불은 기본적으로 전통의 소리를 기반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울린다. 전통이 없는 창작 염불은 몸은 움직이게 해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창작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과 기본이다.

창작염불은 新포교콘텐츠



가심 스님
조계종 교육국장

학인염불시연대회에 대한 논란이 들린다. 그러나 염불은 어려워야 한다는 고착화된 관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과 이를 따르자 하는 염원이 녹아 있다. 이것이 의식과 만나면 의례가 되는 것이기에 염불형식은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사장상을 수하고 율동함으로써 위도가 어그러진다는 지적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학인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과감하고 당돌했는 것이다. 성급긴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염불이 너무 무겁고 의례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염불 시연대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염불의 대중화와 생활화였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정암사 승가대학팀은 최근 똑같은 내용으로 어린이법회에서 염불시연을 하고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포교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창작염불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면 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렵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혜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과일의 왕 **두리안**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신제품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120ml x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